

2023년 04월 30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1장 23~2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50(통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22장 21~30절(신약p.782)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 것이라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29.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30.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 말씀선포 / 용서받는 길

문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일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나 혹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꼭 이것만이 정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오직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적 문제의 대부분은 답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올라가는 방법을 말하면서 여러 방향, 여러 길을 통하여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직 한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만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길 예수님뿐입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끝까지 인과법칙을 고수하며 욥에게 죄를 시인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욥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자 분위기

를 바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비록 엘리바스의 권면은 욕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엘리바스의 권면은 죄인들을 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교훈은,

1. 죄악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욕의 고난을 지켜보던 엘리바스는 그의 고난이 틀림없이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뿐만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욕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7~28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와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22~23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권면 가운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단지 슬픈 감정이나 반성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각과 행동 들이라면 회개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들로부터 확실하게 돌이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성도들이 주차장을 먼저 빠져나오려고 다툼 때도 있고, 식사와 교제와 대화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주일에 예배하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로를 보시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해 주신 것은, 그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생각과 행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2.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문 29~30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의 또 다른 성격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서 하는 자리에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힘을 놓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보호와 형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들은 더욱 하나님께 무감각해집니다. 하지만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둠만 남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들라고 권면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욕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고,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

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한다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감정을 넘어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죄에 머물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 참된 변화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259(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폐 회 / 주기도문